

익산, 집중호우 피해 100억 넘어

현재(12일)까지 114억1000만원 잠정 집계... 추후 늘어날 것으로 예상 시, 작년에 이은 대형 재난...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제적 선포 건의

시간당 100mm가량의 극강의 집중호우가 쏟아진 익산에서 100억 원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2일 익산시에 따르면 8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집계된 익산 지역 집중호우 피해 금액은 114억 1,000만 원에 달한다.

우선 공공시설 피해 규모는 56억 1,600만 원(185건)으로 집계됐다. 지방하천 피해가 14억 9,800만 원(8건)으로 가장 많고 △수리시설 11억 8,600만 원(3건) △문화재 7억 9,600만 원(9건) △학교시설 7억 5,800만 원(2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사유시설 피해는 57억 9,400만 원(8,162건)으로 파악됐다. 상추와 토마토 등이 침수된 원예작물 피해가 28억 6,300만 원(560건)이었고, △식량작물 21억 8,300만 원(7,375건) △가축·수산물 3억 1,600만 원(8건) △주택 4억 3,200만 원(125건) 등이다.

자연재난조사와 복구계획 수립 지침

에 따라 소상공인, 생계지원 등은 피해액을 산정하지 않았다. 시는 수해 현장에 물이 빠지고 복구 작업에 속도가 붙으면 추가 피해 접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8일부터 현재까지 익산에는 평균 295mm의 비가 내렸다. 특히 망성면은 10일 하루에만 231mm의 폭우가 쏟아지는 등 누적 강수량 424mm를 기록했다.

이재민도 속출했다. 100여 명의 주민들이 인근 경로당이나 초등학교 등 안전한 곳으로 거처를 옮겨 지냈다.

시는 시간당 최고 100mm가 넘는 극강의 호우로 인해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수해를 입은 만큼 선제적인 특별재난 지역 선포가 필요하다고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이와 함께 항구적인 재해 예방 시스템 도입과 지속적인 영농을 위한 피해 보상 현실화, 자연재난으로 폐사한 가축에 지원되는 살처분 처리비 지원 등

현실적인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아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피해지역 주민은 재난지원금 지원과 국제·지방세 납부 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18가지 혜택 외에도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을 추가로 받게 된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이상기후로 인한 예측불가능한 자연재해에 맞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재난 시스템 도입과 피해 지원 현실화가 절실하다"면서 "2차 피해 차단과 피해복구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피해복구를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익산=이재훈 기자

익산시 “재난지원금 신청하세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인력 지원해 창구 마련... 20일까지 접수

익산시가 오는 20일까지 수해로 인한 자연재난 피해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시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용 창구를 마련하고, 본청 직원들을 파견해 피해조사를 지원하고 있다. 시는 오는 20일까지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피해지역에 적기에 복구 인력을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수해로 인한 자연재난지원금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지급된다. 해당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난 발생 10일 이내에 사유재산 피해 내역을 접수해야 한다.

신청은 수해 발생 주소지의 읍면동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이나 이장·통장, 이웃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작성된 신고서를 토대로 피해 내역을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입력할 방침이다. 이후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부처가 현장 실사를 거쳐 피해액을 확정하게 된다.

우선 주택피해는 반파와 전파, 유실, 침수로 분류되며 침수의 경우 전문가 확인 후 수해로 인정되면 재난지원금 300만원이 지급된다. 주거시설이 아닌 창고 등 부속 건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생계수단이 농업이나 어업, 임업일

경우 관련 피해를 신고할 수 있다. 농작물은 작물을 새로 파종하는 대파대(50%)와 병충해 방제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농약대로 구분해 지원한다. 축사는 가축 입식 비용을 지원한다.

시는 소상공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담부서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접수 등 피해 내역을 파악하고 있다. 공장 피해는 재난지원금 대상이 아니지만, 침수피해가 확정되면 중소기업부의 융자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수해와 관련한 각종 정보 안내를 시민 눈높이에서 홍보하는 데에도 주력하고 있다.

카카오톡 플러스친구(6만7,200여 명)에 피해 접수를 독려하는 안내 메시지를 발송했다. 또 익산시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블로그 등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같은 내용을 게시해 더 많은 시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시는 추가적인 폭우에 대비해 호우시 안전을 위한 행동 요령과 침수 시 사용하는 양수기 등 수방 자재 활용 방법을 영상으로 만들어 게시하기도 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기한 내에 호우 피해 내역을 접수해 필요한 도움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며 "시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복구작업과 재난지원금 신청 절차를 서두르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 성황리에 종료

1천만원의 상금을 걸고 지난 13일 월명체육관에서 개최된 '2024 군산 아마추어 e스포츠대회'가 성황리에 종료됐다.

군산시가 주최·주관한 이번 대회는 지역 내 e스포츠 수요를 충족하고 생활스포츠로 자리잡은 e스포츠를 통해 세대 간 문화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개회식에는 호원대학교 댄스대회는 인기 게임인 사제에션을 통해 진행된 리그오브레전드(5인 팀전), 발로란트(학교대항전, 5인 팀전), FC 온라인(개인전)과 당일 현장접수로 진행된 카트라이더 드리프트(개인전) 등으로 종목별 대결을 펼쳤다.

경기 전부터 모였던 뜨거운 관심을 입증하는 듯 리그오브레전드, 발로란트, FC 온라인 예선에 150개 팀 총 558명이 접수했다.

이들은 지난 6월부터 3주 동안 진행된 예선 게임에 참가했고, 치열한 전투 끝에 최종 12개 팀, 44명의 선수가 본선에 진출해 자웅을 겨뤘다.

리그오브레전드의 1위는 '군대가자' 팀이 차지했다. 학교대항전으로 열렸던 발로란트 종목은 1위 배방고, 2위 한국게임과학교, 3위 경남전지고로 결정됐다. 개인전으로 열린 FC 온라인은 1위 김강 게이머, 현장접수로 진행됐던 카트라이더 1위는 김민재 게이머로 결정됐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앞으로도 e스포츠 관련 시설 및 행사 유치 등을 통해 익산시의 e스포츠 환경이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군산=이재훈 기자

군산시, 주말 굿은 날씨 속 수해복구 총력

직원·자원봉사자 등 재난 피해복구 전력투구



지난 10일 내린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수해 지역 복구를 위해 군산시는 주말에도 군산시청 공무원, 군부대, 자원방범대, 자원봉사자, 장비 등을 대거 투입해 총력을 쏟고 있다.

14일 시에 따르면, 군산시는 이번 폭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를 위해 지난 10일부터 비상근무에 돌입해 5일간 군산 시내 수해지역 복구 작업에 시 직원 1천여 명, 굴삭기 85대, 덤프 12대 등을 투입했다.

수해복구 첫날인 10일에는 새벽 5시부터 시 직원 456명을 군산시 전 지역에 투입해, 빗물받이·하수구 500여개소를 점검했으며, 산사태, 급경사지 등 재난위험지역 70여개소 예찰을 통해 선제적으로 주민 150여명을 대피시켜 인명피해 최소화에 전력을 다했다.

이후 11일~12일에는 장비투입이 어려운 육산면 여로길 35-5 외 45개소 피해지역에 시 직원 339명, 군부대 30

명, 자원봉사자 93명을 투입했다.

주말인 13일과 14일에도 군산시는 전 직원 비상근무를 통해 시 직원 650여명을 나포면 군동길 163-32 외 19개소에 투입해 산사태로 주택과 도로, 농경지로 흘러내린 토사를 제거하고, 침수된 상가와 주택 내 물품 정리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이번주에 예보된 비에 대비하

고자, 군산시는 관내 주요 교차로 나운동 현대코아사거리 외 33개소에 위치한 빗물받이를 중점적으로 점검에 나섰다.

또한 종합행정읍면동 현지 출장을 통해 산사태 추가 붕괴 위험이 있거나, 급경사지 등 재난취약지역을 예찰해,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주민 대피요령과 비상연락망체계를 당부하는 등 재난대응체계 수립에 만전을 기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피해 주민들이 한시라도 빨리 일상생활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시에서는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복구 작업에 동원하고 있다"면서, "수해복구 뿐만 아니라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침수취약지역과 산사태 위험지역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에서는 수해 피해복구현장에 지원인력을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도록 읍면동별 피해 현황과 지원 수요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조속한 시일 내에 복구를 완료할 계획이다. /군산=이재훈 기자

군산시 “호우피해 신고 지금 바로 하세요”

20일까지 피해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

군산시는 지난 10일 새벽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호우피해 신고를 7월 20일까지 피해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받겠다고 알렸다.

호우피해 재난지원금은 피해 신고 접수 및 관련 부서 피해조사 결과를 거쳐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을 통해 피해가 확정된 시민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공공시설 피해는 17일, 사유시설 피해는 20일까지 피해 신고 접수를 받는다. 시민들은 각 피해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 및 침수 피해 사진을 가지고 방문하여 피해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군산=이재훈 기자

을 통해 피해가 확정된 시민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공공시설 피해는 17일, 사유시설 피해는 20일까지 피해 신고 접수를 받는다. 시민들은 각 피해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 및 침수 피해 사진을 가지고 방문하여 피해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군산=이재훈 기자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 조감도. (사진=군산시청 제공)

익산시-국민의힘, 긴급 현안 간담회 개최

특별재난지역 선포 협조 요청

익산시가 지난 12일 예술의전당 세미나실에서 국민의힘 조배숙 국회의원과 예산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정현을 익산시장을 비롯해 김영석 부시장, 국소단장이 함께했으며 국민의힘 소속 조배숙 국회의원과 임석삼 전북도당 수석부위원장, 송영자 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익산시는 지난 8~10일 기록적 폭우로 공공시설인 도로 침수와 제방 유실을 비롯해 민간부에서도 비닐하우스, 축사, 주택·상가 침수 등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추가피해를 차단하고 시민피해가 누락없이 신속하게 조사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나 신속한 복구와 피해지원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익산시는 지난해에 이어 큰 피해를 입은 시민들과 지역의 회복을 위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게 협조를 요청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2층은 '교육도시 익산'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주제로 공간을 조성한다.

지붕층은 건축물의 역사적 가치를 고려해 시대의 흐름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옛 익옥수리조합의 구조를 개조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기로 했다.

외부에 마련된 창고층에는 실감형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경비실에는 추억의 영정통 거리를 재현한 사진 촬영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김영석 부시장은 "시민역사박물관은 시민이 중심이 돼 익산의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고 역사를 만드는 중요한 공간"이라며 "오늘 나온 중요한 의견들을 검토해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개했으며 국민의힘 소속 조배숙 국회의원과 임석삼 전북도당 수석부위원장, 송영자 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익산시는 지난 8~10일 기록적 폭우로 공공시설인 도로 침수와 제방 유실을 비롯해 민간부에서도 비닐하우스, 축사, 주택·상가 침수 등 피해가

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완성도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마련했다.

사무동 1층은 '한 사람의 기록이 모두의 역사가 된다'를 주제로 기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록으로 보는 익산의 변천사 연표'를 익산군지와 함께 전시해 190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게 구성한다.

또한 시민들이 기증한 기록물은 익산의 공동체 생활, 이리여 폭발 사고와 극복 과정, 일터·관혼상제와 같은 생활사 등으로 분류·전시해 익산시민의 삶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한다.

옛 익옥수리조합의 금고에서는 근대 농업 수탈의 역사를 상징하는 익옥수리조합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할 수 있는 영상을 상영하고, 아카이브월과 키오스크를 통해 전시된 기록물 이외에도 방대한 양의 기증·수집된 민간기록물을 감상할 수 있다.

옛 익옥수리조합, 익산시민의 기록 담은 공간으로 탈바꿈

익산시민역사박물관 조성 위한 중간보고회 개최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군산시, 수산식품 전문단지 조성 본격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에 12개 기업 입주 선정

군산시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에 입주할 민간기업 모집에서 (주)풀무원 등 12개 수산기업이 우선협상 입주기업으로 선정됐다.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는 군산시가 마른김 등 수산식품산업을 지역 신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조성 중인 단지로 군산시는 새만금국가산업 단지에 사업 부지중 약 13만3,000㎡(약4만평)에 달하는 부지를 새만금청으로부터 군산시가 관리기관으로 위임받아 진행 중이다.

현재 공공용지 1만평에는 R&D 식품연구, 스마트팩토리, 야마토헤기공공장시설, 수출협력지원센터가 조성중이며, 나머지 3만평의 산업시설용지에는 지역수산업의 염업인 마른김 가공공장과 서해에서 풍부하게 생산되는 수산물을 활용한 교부가치 식품제조 수산식품가공 업체를 입주시킨다는 게 군산시의 계획이다.

특히 군산시는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를 종합클러스터 성

격의 집적화 단지로 만들어 군산 수산업의 부흥을 꿈꿔왔다. 때문에 2022년 단지 조성 초기 단계부터 국내 수산식품 기업들을 방문하며 홍보활동에 주력하며 노력을 기울였다.

올해 4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는 공고로 통해 입주 희망 기업을 모집했고 접수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현장실사 및 수산식품위원회의 심의를 진행 후 우선협상 입주기업을 최종결정했다.

사실 공고 전에는 최근 고금리, 고물가, 경기침체 등 기업투자 환경이 최악이었던 만큼 미분양에 대한 우려도 나왔으나 예상 밖으로 입주설명회부터 뜨거운 관심을 모았고, 유사 산업단지 중 드물게 1차 모집 공고 만에 입주부지 전량이 분양 완료됐다.

입주기업의 업종도 마른김, 조미김, 절임식품, 해삼가공, HMR밀키트, 냉동·냉장 등 다양한 품목으로 구성되어 향후 종합 수산식품단지로의 조기 안착 가능성도 높아졌다. /군산=이재훈 기자

군산시, 전입 혜택·임신 출산 등 정보를 한 눈에

'아이 키우기 좋은 행복한 군산'으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이와 가족을 위한 키움옴 도시로의 도약을 꿈꾸는 군산시의 서비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홍보물이 나왔다.

군산시는 전입 시 '군산시민에게 드리는 혜택' 홍보 리플렛과 '임신·출산·육아' 리플렛을 함께 제작해 배부했다고 밝혔다.

방간된 홍보물 모두, 군산시 관련 부서들이 제공하는 각종 혜택들이 담겨있다.

먼저 군산시민 혜택 홍보물은 △군산시 시민안전보험 자동가입 △신규 관의 전입자 무료 건강검진(25중) △군산시 평생학습관 무료 수강(1년) △평생학습 활동 포인트 적립 제도(30,000포인트) △스타지역 전입자 쓰레기 봉투 교환 사업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 지급사업으로 구성되었다.

이 외에도 군산시 거주자라면 누릴 수 있는 예술의 전당 공연과 근대역사박물관 통합관람권 등 다양한 '특별 할인' 혜택도 담겼다.

임마들과 예비 임마들을 위한 임신 출산 육아 홍보물 역시 임신부터 육아까지 총 29개의 혜택을 보기 쉽게 수록해 출산 전후의 예비맘과 초보 부모들의 궁금증을 해결할 전망이다.

현재 홍보물은 군산시청 민원실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돼 있다. /군산=이재훈 기자